

 POSRI 보고서

브라질, 호세프 재선 승리로 경제 성장에 악영향 우려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경제·정보분석센터 (unisa21@posri.re.kr)

오성주 수석연구원, 경제·정보분석센터 (supremo9@posri.re.kr)

[목 차]

1. 호세프 재선에 따른 국내외 반응
2. 브라질 경제 현황
3. 호세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전망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지난 10월에 치러진 브라질 대선 2차 결선에서 호세프 현 대통령이 51.64% 득표로 중도우파 후보인 네베스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
 - 이번 브라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. 막판까지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치면서 나타난 사회 분열상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
- 노동자당 후보인 호세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브라질 금융 및 자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
 - 호세프 재선 확정 직후, 금융 시장에 실망감이 반영되어 헤알화 가치는 달러 대비 2.68% 떨어진 2.52 헤알로 마감(10.27일). 이는 2005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
 - 주가지수도 최근 3개월간 9.2%, 고점대비 15.8% 하락하며, 약세가 심화되고 있음
- 현재 브라질 경제는 내수 침체와 동시에 高물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
 -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로 올 상반기부터 (기술적) 경기 침체기 진입
 - 최근 3년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2.1%로 둔화되었으며, '14년 1, 2분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
-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재정수지 악화, 브라질 코스트 등 구조적 난제 해결이 급선무. 하지만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
 -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중전보다는 다소 축소된 경기 부양책 예상
 - 주요 정책으로는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수입 증대, 복잡한 조세 체계 단순화, 외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한편, 최저 임금은 지속 인상 전망
- 브라질 진출기업들은 추가 금리 인상, 물가 상승 및 경기 하강 리스크 등을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
 - 2010년 대선 직후와 같이, 내년은 그 동안 억제되어 오던 공공요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물가 상승 가중 우려가 있음. 또한,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 금리의 상승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늘어날 전망
 -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영향과 변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음
 - 호세프 정부는 노동자 계층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만큼, 최저 임금의 지속적 인상과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가 예상됨
 - 내년 1월에 출범할 호세프 2기 정부에서는 경제관련 주요 장관 및 공공기관 임원교체가 예상되므로 인적 네트워크 체크도 필요

1. 호세프 재선에 따른 국내외 반응

□ 2014년 10월 26일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호세프 현 대통령이 51.64% 득표로 중도우파 후보인 네베스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

○ 1차 투표(10/3일)에서 호세프(Rousseff) 대통령은 41.6%를 획득 1위로, 네베스(Neves) 후보는 33.6% 2위로 결선 진출하였음

- 당초 제 2야당 대통령 후보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였던 실바(Silva)는 호세프 진영의 네거티브 공세와 네베스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으로 21.3% 득표에 그치며 결선 진출에 실패

<2 차 결선 대선 후보들의 주요 지지층 및 정책 노선>

	지우마 호세프(노동자당)	아에시오 네베스(사회민주당)
지지층	▪ 북동부, 저소득, 저학력, 고령층	▪ 남부, 재계와 투자자 계층
정책 노선	▪ 자국산업 보호, 정부의 환율·기업 통제 ▪ 남미경제공동체(Mercosur) 강화 ▪ BRICS 협력 증대 통한 미국 등 서방 견제	▪ 친기업 및 친시장 주의 ▪ 재정적자 개선,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 ▪ 메르코수르 역할 축소, 미국 및 아시아 협력 증진

○ 이번 대선은 브라질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기록. 막판까지 두 후보가 접전을 펼침으로써 드러난 브라질 사회의 분열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우려 대두

- 이번 선거에서도 호세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룰라 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북동부 지역의 서민층과 빈민층이었음. 반면 중산층 이상의 유권자들은 주로 야당 후보에 표를 던짐
- 이번 선거를 통해 브라질 사회가 지역별 차이 외, 경제적 수준에 따라, 지지 후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점에서 AP 등 외신들은 “브라질 사회의 분열상이 낱알이 드러난 선거였다”고 평가

□ 호세프 2기 정부는 분열된 사회의 통합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시작. 이에 따라 정책실행에 있어 1기 때보다 많은 유연성이 요구됨

○ 특히, 경제 정책에 있어 서민층 지원을 위한 기조는 유지하되,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중산층을 고려, 일부 유화책도 펼칠 것으로 예상

- 호세프 대통령은 이미 선거 유세를 통해 룰라 정부 초기부터 경제 부처 장관을 역임한 기도 만테가를 퇴진시키고, 2기 정부에는 기업 CEO 출신 장관을 기용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음
- 그러나 다음 대선에는 호세프 자신은 출마할 수 없는 반면,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룰라 전 대통령이 재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새 변수 발생. 이에 따라 호세프가 자신의 소신대로 서민 정책 기조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

※브라질 헌법은 연임을 금지하지만, 3선 금지 조항은 없음

2. 브라질 경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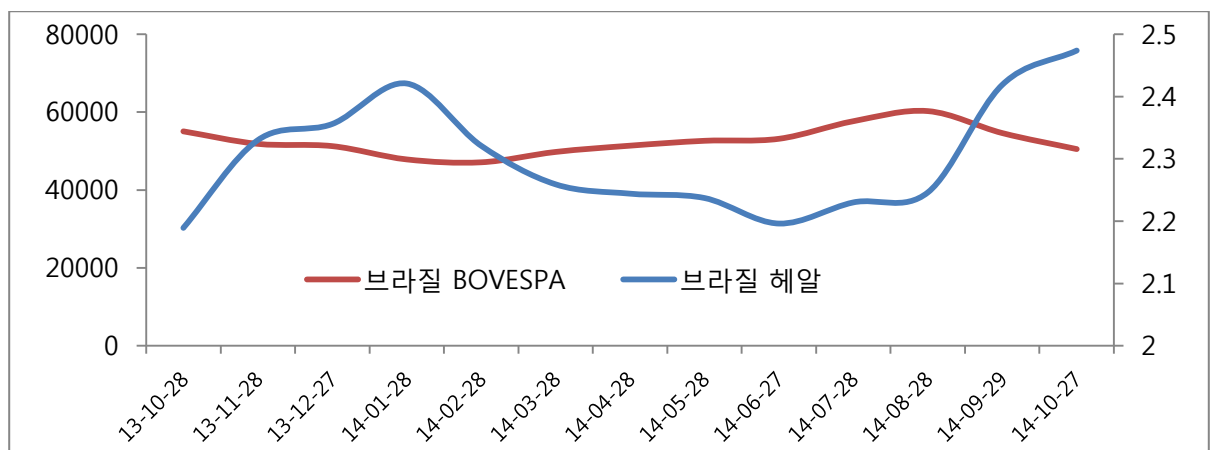
□ 현재 브라질 경제는 내수 침체와 동시에 高물가 상황에 직면

- 만성적인 경상 적자로 올 상반기부터 기술적 경기 침체기에 진입
 - 최근 3년간 경제 성장률은 평균 2.1%로 둔화되었으며, '14년 1, 2분기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를 기록
 - 이러한 경기 침체는 특히, 투자(1Q -2.1%→2Q -11.3%) 위축에 따른 영향이 큼. 기업 심리지수도 10년 내 최저치('14.10월, 45.8)로 하락
- 물가는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. 게다가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가격 통제(휘발유, 전기세, 버스요금 등)에도 불구하고, 최근 4년간 물가 억제 목표치(4.5%±2%) 달성에 실패
 - 브라질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 한도는 6.5%이나, 월드컵 개최와 대선 준비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9월말 이미 6.65%로 목표치를 넘어섬
 - 브라질은 만성적인 경상 적자에다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무역 적자로 생필품(수입) 물가가 크게 상승, 서민층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

□ 노동자당 후보인 호세프 대통령 당선에 따라 브라질 금융 및 자금 시장은 단기 부정적 영향 예상

- 호세프 재선 확정 직후, 금융 시장의 실망감 반영으로 헤알화 가치는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주가지수도 하락
 - 10.27일 헤알화 가치는 달러 대비 2.68% 떨어진 2.52 헤알로 마감. 이는 2005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
 - Ibovespa 주가지수도 최근 3개월간 9.2%, 고점대비 15.8% 하락
 - 특히, 내년은 미 출구 전략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 달러화 유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헤알화 가치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함

<지난 1년간 브라질 주가 및 환율 추이>



출처 : 국제금융센터

3. 호세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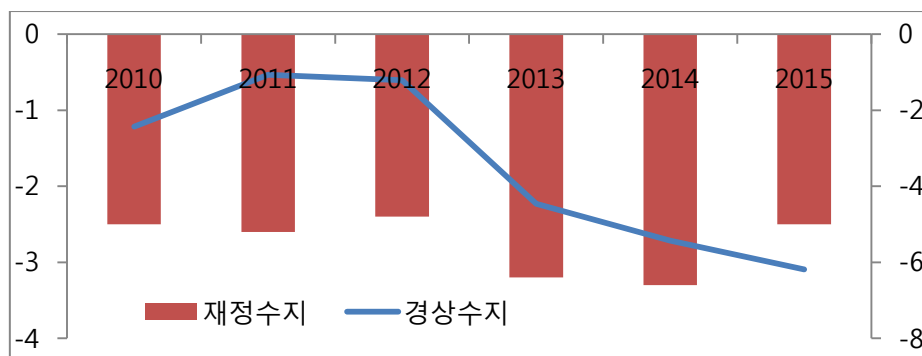
□ 경제 재도약 위해서는 재정수지 악화, 브라질 코스트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반면,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 여건 악화가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

○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중전보다는 다소 축소된 경기 부양책 예상

- 현 정부는 사회 보장 지출 과다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경상 수지는 무역 및 소득 수지 악화로 적자 폭 확대 中 ('14년 GDP 대비 재정 수지 -3.3%, 경상 수지 -5.43% 전망)

※ 과거 룰라 집권기에는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정부 지출을 기반으로 한 소비 활성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음. 그러나 '09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위축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호세프 정부 지출의 내수 진작 효과는 크게 약화됨

<브라질 재정수지(좌측) 및 경상수지(우측)>



출처 : IMF

○ 저성장 국면 탈피로 경제 성장 동력회복과 함께 ‘브라질 코스트’ 해소에 집중할 필요

- 세제 개혁 등 브라질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고질적인 관료주의와 만연한 부정부패 등의 척결이 선행되어야. 하지만 단기간 해결이 어려워 개혁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이 존재함
- 한 예로, 국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 페트로브라스의 조직적인 부패는 에너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임

브라질 코스트(Brazil Cost): 브라질은 복잡한 조세체계, 높은 법인세와 금융비용, 인프라 부족, 낮은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통칭하는 용어

○ 주요 정책들로는 적자 개선을 위한 재정수입 증대, 복잡한 조세 체계 단순화, 외환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한편, 최저 임금은 지속 인상 예상

- 집권 노동자당은 규제 강화와 시장에의 국가 개입이라는 정책 노선으로 인해 1기 정부에서 비록 실패하였어도, 인위적 물가 통제, 국영은행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

□ 상기 요인들을 종합할 때, 호세프 2기 정부의 브라질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낮은 편

- 새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 개발은 장기 성장에 주요 긍정적 요인. 그러나 개혁추진 자체가 어려워 사회불안 확대 및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이 있음
 - 해외 투자자들은 노동, 조세, 연금 정책 등 브라질 당면 과제들의 개선 가능성에 회의적임. 내수 부진 지속에 따라 주요 투자에 대한 결정도 지연되고 있어 내년까지 경기침체 탈피는 어려울 전망
 - IMF는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의한 브라질 경기 부진을 반영하여, '14년 성장 전망을 종전 1.3%에서 0.3%, '15년 전망치를 2.0%에서 1.4%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
- 재정 건전화, 정책 개선 등이 미진할 경우, 브라질 경제의 취약성이 부각되어 신용등급 추가 하락 및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이 높음 (국제 금융센터, 2014.10.24)
 - 재정 악화 우려가 해소되지 못해, 신용 등급이 추가 하락하여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경우, 기업 자금 조달과 투자 확보에 매우 부정적 영향
 - S&P는 현재 BBB- 부여(투기 등급 바로 위). Fitch와 무디스는 각각 BBB, Baa2로 두 단계 하락 시, 투자부적격 등급

<글로벌 신용평가들의 신용등급 평가>

기관	S&P	피치	무디스
등급	BBB-('14.03)	BBB('11.04)	Baa2('14.09)
전망	Stable	Stable	Negative

출처 : 수출입 은행

※ 9월초, 무디스가 브라질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→부정적으로 조정한 가운데, 최근 페트로브라스(최대 국영 에너지 기업)의 신용 등급 강등이 이어지면서, 추가 조정 가능성도 높음

- 高물가의 주요 원인인 헤알화 가치 하락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
 - 특히, 글로벌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 브라질의 경상 수지 적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※ 헤알화 환율 전망: 2.16('13) → 2.31('14) → 2.40('15) → 2.48('16)
-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시장 통합과 브릭스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
 - 그 동안 폐쇄적 경제 공동체인 Mercosur에 묶여 브라질의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저해되었다는 비판에 따라, 내년부터는 개방적 경제 블록인 태평양 동맹(Pacific Alliance)과도 시장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
 - 또한, 지난 임기 동안 미국을 견제하려는 양 측의 이해 관계로 중국 및 러시아 등과 활발한 경제 교류를 추진해 온 만큼, 이들과의 협력 관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

4. 시사점

- 해외 투자자 입장으로 볼 때, 브라질 대선 결과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브라질 경기 회복은 비관적 상황임
- 내년도 글로벌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원유·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. 이에 따라 브라질 경제 여건은 올해와 유사할 전망
 - 한편, 미국의 테이퍼링 종료로 신흥국 자금 이탈 본격화 시, 헤알화 가치 추가 하락 → 물가 상승 → 경제 침체 지속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- 브라질 진출 기업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, 물가 상승 및 경기 하강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함
 - 2010년 대선 직후와 같이, 새 정부 출범으로 그 동안 억제되었던 공공 요금 인상이 단행되면서 물가 상승 부담 가중. 이로 인해 내년도 기준 금리 인상과 따른 시중 금리 상승이 예상됨
 - 특히, 내년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신용 등급 하락과 조달 비용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
-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영향과 변화 요인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대응할 필요가 있음
 - 호세프 정부는 노동자 계층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만큼, 최저 임금의 지속적 인상과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가 예상되므로 노동법 강화에 따른 법률 비용 추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호세프 2기 정부 출범 시, 경제팀의 대폭 교체가 예상되는 만큼, 주요 공기업 CEO들의 교체 가능성도 대두되므로 기존에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의 체크도 필요

[참고자료]

국제금융센터, “브라질 대선 향방과 경제적 영향 점검”, 2014.10.24

IMF, <http://www.imf.org>

한국수출입은행, “14년 브라질 투자환경위험평가”, 2014.06.26